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 (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 집회서 35, 15ㄴ-17.20-22ㄴ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4,6-8.16-18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답송

시편 34(33),2-3.17-18.19와 23(㉠ 7ㄴ)

복음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알렐루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복음 ㄷ 루카 18,9-14

<바리새자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짙빚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찢값을 벗으리라. ◎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전례 봉사 안내

	10월 26일 (일) (녹) 연중 제 30주일	11월 2일 (일) (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첫째 미사	11월 9일 (일) (백)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평신도 주일)
미사 해설	김지나 노엘라	조옥주 안젤라	원선희 안젤라
제 1 독서	연승재 베드로	정성룡 세례자 요한	박상현 라파엘
제 2 독서	박영주 글라라	손은희 크리스티나	최미라 소화데레사
보편지향기도	최미라 소화데레사	배미주 요안나	김지숙 로사
봉 헌	3반	4반	5반
성체분배자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례자 요한	김수환 요한
복 사	권민서 로사리아 이은유 아네스, 왕서윤 소화데레사	정태오 다니엘 권민서 로사리아, 이유진 스테파니아	박하선 미카엘 한나, 왕서윤 소화데레사
성 가	입당 8 예물준비 226, 216	성체 500, 496	파견 34
미 사 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넌 나만 바라봐

김형균 스테파노 신부 |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위원장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18,9)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18, 11) 기도하며, 마치 자신이 하느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18,13)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태도만 보더라도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집니다. 바리사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도의 형식으로 포장해서 자랑하듯 하느님께 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8,13)라고 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서의 자신’ 만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리사이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자기 말만 하는가 하면, 하느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단식과 십일조를 지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에 성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의 태도와 기도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나음을 자랑하며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었기에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말씀을 들은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집회 35,15)라고 언급했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차별하기보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들은 “나는 옳아!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우월감에 빠져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혹은 맡겨진 직책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남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기보다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 목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날짜	반 통 사	안 내
10/26	3 반	반 봉사자
11/2	4 반	반 봉사자
11/9	5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사	메뉴
10/26	3 반	커피/티/비스킷
11/2	4 반	커피/티/비스킷
11/9	5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11월 반 모임 안내 요한 2,13-22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11월 9일 (일) 12:30pm 성당 도서관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11월 8일 (토) 6:30pm Zoom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11월 14일 (금) 6:00pm 오형남 알베르토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11월 14일 (금) 8:00pm Zoom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11월 14일 (금)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리들의 정 성 ♥			
	10월 05일	10월 12일	10월 19일
헌 금	\$649.70	\$652.20	\$464.10
교 무 금	\$400.00	\$1,950.00	\$300.00
감사헌금	+	+	+
합 계	\$1,049.70	\$2,602.20	\$764.10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최재권 다미아노 & 박비주 세실리아
남현준 다니엘 & 원선희 안젤라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3반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 본당 신부님 휴가 안내

일정) 10월13일(월)~11월13일(목)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는 장 스켈런 신부님
과 김현직 토마스 신부님께서 집전
해 주십니다.

◆ 2026년도 매일미사 신청 안내

정기구독 기간) 2026년 1월~12월

-매일미사(소): \$70

-매일미사(대): \$100

신청 마감일) 11월 2일(일)

신청) 사무실 또는 조옥주 안젤라

0430282737



◆ 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성가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모집 구분)

- 정규 단원 : 주일미사 성가 및
특송 참여

- 프로젝트 단원 : 특송 시에만 참
여 (월 1회 정도 + 부활·성탄)

정기적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도 부담 없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
니다.

문의) 문소영 소피아 0406174746

◆ 목주기도 성월

10월 한 달 동안 미사 30분 전부터
목주 기도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령성월 묘지방문

일시) 11월2일(일) 1.00pm

장소) Altona Memorial Park(남종삼
베드로/ 이현숙 다이아나 묘지)

신청) 10월 26일(일)까지 사무실
점심 도시락 주문을 위해 참석여부
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 교육

세례식) 12월 25일 (목요일)

교리) 매주 일요일 8pm Zoom

신자분들은 기도와 전교에 힘써주
시기 바랍니다.

일 시	행 사 일 정	성 당 오 시 는 길 <MELWAY31 D6>
11월 1일(토) 11월 2일(일)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후 묘지 방문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350번 버스 (월요일~금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 위령 성월 >

전례상식

성월이란 전례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복돋기 위해서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 신심 기간을 말한다.
특히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
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성월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 위령성월이다.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고 이것
이 널리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11월 한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옛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
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
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또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 </div> <div>  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  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